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101~11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李世鉉

(성균관대학교)

《요약》

한국 사회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를 통한 연대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이래로 유교적 가치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개인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보편적 가치로 작용되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에 유효하게 자리하고 있다. 유교는 전통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한국인 정체성의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세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유교는 일상 생활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인간 관계의 정립을 위한 윤리 도덕을 중요시하며, 이 부분에서 종교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의 접점이 형성되어진다. 정체성의 문제와 종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적인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주체적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되어진다.

핵심주제어 : 정체성, 보편가치, 가치관, 인간학, 윤리도덕.

I . 시작하기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 역시 구성의 복잡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세대간 차이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이 제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구심점이 없는 사회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또한 묵시적으로는 공통된 정

서를 향유하고 있다고들 여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지난 해의 일일 것이다.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2002년 6월, 한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빨간 색 티셔츠를 입고는 “오~ 필승 코리아”, “태~한민국”을 외친 집합적 열광이었다. 이 열광과 가슴 벅찬 사건에는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재외동포들도 참여를 했다. 그리고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도 남한 축구팀의 계속된 선전에 박수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나된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해주었고 발산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물질적 풍요에서 성장한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기적 성향이 강하고 집합주의적·공동체적 성향이 약하다는 인식을 일시에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

역사이래 구성원들의 민족적 특징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매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 온 사회인 한국에서 단지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에 보여준 열광을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그러한 집합적 열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 자문(自問)하게 된다. 우리는 요즘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체형이 발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경우 체형은 발달하였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체력은 많이 저하되었으며, 과거에는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들에게도 발생한다는 소식도 접하곤 한다. 똥만지같은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과연 나는 한국인일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분명히 서구에서 비롯된 의복들을 입고 있으며, 김치보다는 햄버거·피자 등의 패스트 푸드를 선호하고, 감주나 수정과보다는 콜라를 즐겨 마시며 이불을 깔고 자기보다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나는 과연 한국인일까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네 한국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보여 주려고 흔히들 인사동을 나가곤 한다. 그러나 그 곳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뜻과 외래어가 뒤섞인 간판들로 뒤덮여 있는 종로를 만나게 된다. 불과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두 곳 가운데 어디가 한국인들의 거리’인가?

그러나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 혹은 공통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의 연장선에서 살아 왔던 사람들과 도무지 그것과는 친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모두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지향을 보였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그들을 묶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해 6월에 한국인들은 전세계인들을 향해 분명히 보여 주었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 스스로도 놀랐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유교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종교교육의 문제도 짚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

1. '실체'로서의 정체성

영어의 identity가 번역된 정체성은 흔히들 주체성, 동일성, 자기 확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개인이 지니는 자기의 존재 증명, 또는 참된 자아, 자기의 단일성이나 연속성, 불변성, 주체성 등의 감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정한 인격이나 그 외의 대상과의 사이에서 또는 일정한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아이덴티티는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라든지 긍정되는 역할을 매개로 하여 획득되는 연대감과 안정감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기존중 또는 긍정적 자기상(自己像)을 의미하기도 한다.¹⁾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이란 특정한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의 총체로서, 그 특정한 문화권의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느끼는 바, 그 문화가 지니는 존재 증명인 동시에 단일성이나 연속성, 불변성, 주체성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체성은 타자 또는 외부인들과 비교를 통해 보다 뚜렷해진다. 우리'라는 정체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같음을 확인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주로 의식하지만, 세계 각 국의 여성들과 섞여 있을 때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각할 것이다. 즉 개인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복수의 정체성 망 속에서 자신의 인식과 사회규범 그리고 행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환경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한다.²⁾

현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세

1) 박선영, <정보사회에서의 교육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서울: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21권, 1999, 38쪽.

2) 이정덕, <지역 축제와 지역 정체성 : 풍납제와 춘향제의 사례를 통해>, 전남: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지역사회학회,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1998, 105~120쪽.

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특정한 종교도 사회적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다종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에게는 심층적으로 무교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또한 한국인들은 4세기 중엽이래 불교 문화의 영향속에서 생활하였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하게 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근대이후에는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영향 역시 강력한 사회적 집단으로 한국인들의 삶에서 영향을 끼쳤다. 윤이흠이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는 유교적이며, 인생관은 불교적이며, 사랑이라는 행동 철학은 기독교적이며, 운명관은 무속적이다.”³⁾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불교인이면서도 민간 신앙을 수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유교적인 윤리 규범에 거부감이 별로 없이 여러 종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혹은 한국 문화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히려 있기는 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혹자는 한국적인 한국인들만의 특질에 의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답은 매우 형식적이다. 왜냐하면 그럼 한국적인 또는 한국인들만의 특질이란 무엇이나고 물을 수 있고, 그 답으로는 한국을 다른 나라와 구별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공통 속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체성을 찾는 시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체로서의 한국인들은 각기 그 정체성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범주간에는 공통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란 집단이 역사를 통해 공통으로 만들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들의 특질을 분석한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된 집합적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한국인들이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기준은 여러 가지이다. 사람들은 민족·국적·혈통·지역·언어·성씨·성별·연령·동창·사회적 계급 등에 따라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경계를 여러 갈래로 가른다. 개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을 특정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한다.⁵⁾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이 이민족 또는 외국인과 마주치기 전에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혹은 국민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3)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서울: 집문당, 1988, 224쪽.

4)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0, 30쪽.

5) 이정덕, 앞의 글, 106쪽

쉽지는 않다.

민족 정체성은 남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자각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징(sym bol)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백의(白衣) 민족, 아리랑, 한(恨)의 민족, 단군 신화, 태극기 등이 그것이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상징을 통해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징이 전통 사회 혹은 분단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20세기의 상징이라는데 있다. 이후 한국인을 한데 묶는 상징의 부재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⁶⁾ 그러던 것이 지난 해 6월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빨간색 상의를 상징 체계로 발산된 것이다. 결국 한국인의 정체성은 비록 특정하여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생상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객관적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점에서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보편 가치로서의 유교

한 시골 노인이 필자의 안내로 성균관을 구경한다면 필자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선성선사(先聖先師)들이 모셔진 대성전, 예전에는 위패가 모셔졌지만 심산 김창숙 선생의 문묘위패 매안 사건이후로 텅 빈 동무(東廡), 서무, 강의실 공간이었던 명륜당(明倫堂)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 서재 등등 구체적인 건물들을 가리키며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성균관은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여 다시 지은 것이라는 설명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노인이 다시 '성균관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난감할 것이다. 그는 성균관도 보기를 원한다. 이미 성균관을 다 둘러보았는데도 말이다. 그 노인은 대성전, 명륜당과 같은 구체명사들과 혼돈하여 성균관도 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성균관은 이미 추상명사이다. 따라서 그 자체를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다.

유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그 요소들은 유교를 구성하는 개별체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교는 그 개별체들의 집합체로서 구성된,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추상성을 가진 개념일 수 있다.

필자가 보편가치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유교뿐만이 아닌 불교와 무교 등 제 종교의 가치관들이 혼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개인의 가치관 형성

6) 설동훈, 정태석,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서울: 사회과학원, 《사상》

Vol 14, No 3, 2002, 33쪽.

을 위해 유용한 방법적 도구로 이용된 유교적 가치는 비록 이름뿐만 일지라도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었다. 이 시각의 연장선상에 보면 동아시아의 문명과 사상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진 유교적 사고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해 왔던 것이다. 삼국 시대 이래로 한반도에서 시행된 유교 교육 역시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체로서의 유교는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였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이미 한국인들 안에 존재하여 왔고 매우 유효한 가치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유학은 최소한의 윤리를 가지고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며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넓혀 가는 확장의 논리로 개인으로부터 집단, 국가 나아가 세계까지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에게 있어서 보편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모든 종교와 가치의 근저에는 유교적 의미가 살아 있다. 줄리아 칭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좋은 삶든 '유교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면서도 한국인인 이상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의 전통과 한국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며 축적된 유교의 종교 문화적 유산과 무관할 수 없다는 뜻이다.⁷⁾

길희성은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종교적 다원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이 민족적 동일성에 의해 제어 되어되거나 약화된다고 하면서 민족적 동일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유교의 위치와 역할에 유의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 체계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⁸⁾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동질적 문화 전통에 의해 형성된 민족적 정체성이 그 어느 종교적 정체성보다도 강하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유교라는 종교적 전통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에 있어서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이 반드시 같이 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교나 그리스도교보다는 유교가 실제상 한국인의 행동 규범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불교와 그리스도교보다는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회

7) 김성기, 〈통일이후 민족 동일성 회복과 유교의 역할〉,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23집, 2000, 51~52쪽.

8) 길희성, 〈종교 다원세계 속의 신앙〉, 서울: 민음사, 《포스트 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1994, 18쪽 참조.

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교적 가치체계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든 불교 신자이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으며 어느 정도 유교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유교적 그리스도인이며 한국의 불교인은 유교적 불교인이라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유교는 말하자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차이를 중화시켜주는 공통분모 내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

길희성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생활 문화 영역의 근저에는 유교적 보편 가치가 작용되고 있다.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교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및 문화 의식은 유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관습·규범 속에 깊이 녹아 있다. 유교에 대해 옹호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비판의 주장과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깊은 곳에는 유교가 흐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윤리관과 도덕관에는 이 유교적 정신이 면면히 살아 있다. 한국의 문화와 공동체, 사회의 원동력의 근원을 깊이 추적해 볼 때도 가장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생활 윤리적인 가치가 바로 유교이다. 즉 유교는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택과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였으며, 삶의 내면에 일관성 있게 조직화되어 있는 한국인 삶의 지향성으로 보편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III. 유교적 교육 전통과 한국인

1. 전통교육의 중심에 있는 유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실체로 한국인의 내면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유교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유교를 언제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서기 372)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¹⁰⁾고 되어 있다. 또한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9) 길희성, 같은 글.

10)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第6.

태학의 교과 과정은 오경(五經)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경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 고구려에 비하여 백제의 경우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그 단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박사(博士) 고흥(高興)이 처음으로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¹²⁾ 신라는 통일 과업을 완수하고 난 후인 신문왕(神文王) 2년(682) 국학(國學)을 설치한다. 이 국학은 당(唐)의 국자감(國子監) 제도를 참작하여 설치된 중앙의 국립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며 문묘(文廟)의 제도를 갖춘 향사(享祀) 기관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후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成均館)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학은 당의 국자감과 내용을 많이 달리하며 신라의 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을 갖추게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職官志)의 국학(國學)조(條)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양과목은 《논어》와 《효경》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들은 공통 필수 과목이었다.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교양 과목인 《논어》와 《효경》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¹³⁾ 두 경전이 교양 과목이면서 동시에 공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바로 인간 교육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은 교육 목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려의 경우도 국자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敎)가 혼재되었으며 특히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불교가 유효한 종교로 자리하였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을 통한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는 윤리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전인 교육을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¹⁴⁾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 성균관이 중건되고 교과 과정이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심으로 개편되어 조선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서로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다음의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사서를 마친 학생은 그 다음으로 《예기》·《춘추》·《시경》·《서경》·《역경》의 순서로 수업을

11) 《舊唐書》 卷199, 〈列傳〉 149, 〈東夷傳〉 ‘高麗條에 보면 高句麗에는 五經과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文選 등의 典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 後漢書 三國志 孫盛 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이로써 太學의 교과과정은 五經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사상과 三史를 비롯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30年條: 秋七月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13) 《三國史記》 卷38, 〈雜志〉 7, 職官志上, ‘國學’條 參照.

14) 《高麗史》 卷74, 〈選舉志〉 28, ‘學校’條 參照.

하게 하였다. 고려때부터 내려오는 이 제도대로 시행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업 순서의 나뉘기 없이 사서와 오경을 적당한 순서로 나누어 교육¹⁵⁾을 하였든지 간에 대학의 교육기관에서 왜 이러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였가 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화의 근본으로 인륜(人倫)을 밝히고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삼대[夏·殷·周] 이전에는 그 법이 크게 갖추어졌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비록 순연하지는 못하였으나 학교를 중히 여기기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한 시기의 정치의 득실은 학교의 흥폐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¹⁶⁾

조선 초기 사회 제도의 기틀을 정립한 정도전(鄭道傳)의 언급에 의하면 학교를 통한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됨을 밝히는 것 즉, 인간 교육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육성해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가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교육의 성패가 바로 온전한 사회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목표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학교제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내면적 가치관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2. 유교적 가치관의 특징

유교적 세계관은 매우 현실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현세지향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현실 중심적인 사고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 사상의 커다란 특징이다. 제자인 계로와의 대화에서 공자는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¹⁷⁾라고 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¹⁸⁾라고 하였다.

15) 閔炳河, 〈韓國 儒學의 傳統的 教科課程〉, 서울: 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民族文化》 제4집, 1978, 87쪽.

16) 鄭道傳, 《朝鮮經國典》, 〈禮典〉, ‘學校’條: 學校教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 三代以上其法大備 秦漢以下雖不能純然 莫不以學校爲重 而一時政治之得失 係於學校之興廢.

17) 《論語》, 〈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계로와의 대화를 통해 공자는 자신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라는 것과 삶(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자가 초월적 존재에 대해 완전히 부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른 제자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썩신을 공경해라. 그러나 멀리해라”¹⁹⁾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강조한 공자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 가치인 인류에 대한 사랑' 역시 매우 현실성을 띤다.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연(仁)'에 대한 언급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출발처이자, 근본이라고 하고 있다.²⁰⁾ 사람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같이 동시에 처한 상황에서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면의 세계에 충실하지 않고 외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가식적인 실천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자신이 관계'할 수 있는 1차적 대상으로부터 실천하는 인간 사랑의 기본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대인 관계의 원만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²¹⁾

물론 이 실천은 확장적 구조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내면적인 완성을 이룬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외적인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²²⁾ 이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²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내적 수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수양은 사회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모든 인간 존재들의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진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²⁴⁾ 즉, 나와 너 그리고 만물의 완성을 궁극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상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닦아 나아가면 하늘의 이치에까지 이를 수 있다'²⁵⁾라고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닦아 나가면 결국은

18) 《論語》, 〈先進〉: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19) 《論語》, 〈雍也〉: 敬鬼神而遠之.

20) 《論語》,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21) 《論語》, 〈學而〉: 其爲人也孝悌 而好犯上者鮮矣.

22) 《論語》, 〈憲問〉: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23) 《大學》 經1章 參照.

24) 《論語》, 〈憲問〉: 修己以敬 修己而安人 修己而安百姓.

《大學》, 經1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25) 《孟子》, 〈盡心章句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러 결국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경지가 하나로 만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지는 대자유의 경지일 것이다. 그러한 대자유의 경지에 대해 공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지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²⁶⁾고 하였다.

유교적 가치관은 단지 자신의 완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성을 이루는 ‘성기(成己)’와 다른 존재의 완성인 ‘성물(成物)’의 경지를 동시에 그 이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²⁷⁾ 이렇게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는 유교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외재적 대상에 의해 이상(理想)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道)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²⁸⁾라고 공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것을 실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 삶에서의 도덕 질서를 중시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예는 천지의 차례이다. 조화롭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모두 순화되고 차례가 있으므로 사물들이 모두 분별이 된다”²⁹⁾는 말과 같이 예는 인간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되며, 일정한 제한과 질제를 요구하는 기제들이다. 따라서 이 예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개 존재들의 충돌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공동체의 가치, 도덕률이 투영된 외적인 행위 기준인 예를 회복하여 실천하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출발은 자신으로부터라고 한 것이다.³⁰⁾ 이것은 유교가 내용과 형식의 조화미(調和美)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IV. 종교와 교육의 만남

1. 세속성(世俗性)으로부터 출발하는 유교

26) 《論語》, 〈爲政〉: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27) 金聖基,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서울: 한국 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1999, 42쪽.

28) 《論語》, 〈衛靈公〉: 人能弘道 非道弘人.

29) 《禮記》, 〈樂記〉: 禮者 天地之序也 和故百物皆化 序故物皆別.

30) 《論語》, 〈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유교가 종교인가 아니면 윤리 규범·전통 사상·통치 철학의 한 범주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도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진 문화의 하나이고 모든 문화는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유교 역시도 나름대로의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관에는 그 집단에 속한 인간들의 의식과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상징이나 신념의 역사와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한 집단내의 인간과 사회를 통하여 형성된 세계관에 대한 신뢰는 그 세계관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가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실재(實在)라는 측면을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 역시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장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유교적 삶이 시작된다. 세수하고, 머리 빗는 단장도 부모님께 문안하는 일도 모두 유교적 수양의 조목이다. 거리에 나오면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자세도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는 세속적인 일상 생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 있다. 신성성은 세속성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을 이끌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³¹⁾

라고 하여 유교를 인간의 삶인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비근하고 사소한 데까지 젖어 들어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교는 하나의 문화로 이념 체계를 형성하여 인간 삶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신념을 통하여 윤리적 요소를 갖추고 이것을 의례와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³²⁾

일상 생활의 가장 비근한 것에서부터 수양의 출발을 삼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몸가짐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통해 가르침을 실천하는 유교 정신은 《소학》의 교육정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학》은 조선조 오백 년 동안 일상생활의 지주가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중요성을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소학》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실천을 중시하였던 도학(道學)에서는 필독서로 매우 중요시 여겨진 전적이다.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육체적 삶을 확보한 다음에 이상적·도덕적 삶을 확립하여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는 것이다. 현실적·육체적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31)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9, 31쪽.

32) 황필호는 〈유교는 종교인가〉에서 유교의 종교성에 대해 각각도로 분석하고 유교가 종교인가의 여부에 대해 각각도로 고찰한 후 '유교는 종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황필호, 〈유교는 종교인가〉, 서울: 한국공자학회, 《공자학》 제7호, 2000, 21~49쪽.)

등의 삶의 기본 조건을 구비하고 인간 사회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상적·도덕적 삶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도덕적 본질을 인식하여 밝힌 뒤에 그것을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학》은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과 배움의 원칙을 기술한 〈입교(立敎)〉,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리인 〈명륜(明倫)〉,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향하는 방법을 제시한 〈경신(敬身)〉, 옛 성현들의 올바른 언행을 열거하여 윤리 실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계고(稽古)〉 등의 내편(內篇)과 고금(古今)의 성현들의 가르침과 선행을 따로 모아 수양에 참고로 삼도록 한 〈가언(嘉言)〉, 〈선행(善行)〉 등의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명륜〉 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소학에 들어가 마당 쓸고 물 뿌리기(灑掃), 대답과 응대하는 것(應對),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제대로 알며(進退) 그것들이 정해진 바의 법도에 맞는 것과 적합한 순간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 질 것을 가르치고, 애친(愛親)·경장(敬長)·친우(親友)의 도리를 가르친다.³³⁾ 인간 삶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통해 이상적이며 도덕적 삶을 융합하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래로부터 배워서 위로 도달하는’³⁴⁾ 것이다.

종교로서의 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주목할 것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여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의 인간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⁵⁾ 이러한 논의 구조를 바탕으로 유교를 정의한다면 ‘연간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는 현실에서의 인간 삶에 대한 종교이다. 그 결과 현실에서 인간 삶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문제는 바로 윤리적인 측면으로 대두된다. 윤리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윤리 의식과 행위의 출발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공자는 인류에 대한 사랑(仁)은 효(孝)와 제(弟)를 근본으로 한다고 한 것이다.³⁶⁾ 또한 유교적인 행사는 대개 가족 단위로 치러진다. 따라서 불특

33) 《大學》, 序文: 人生八歲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敎之以灑掃 應對 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소학》은 상고시대부터 있던 학교제도의 하나로 大學과는 입학 대상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목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전적으로 《소학》은 중국 宋代에 朱熹와 劉子澄에 의해 학교인 소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편찬한 것이다.

34) 《論語》, 〈憲問〉: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35) 孔子는 《論語》에서 ‘未能事人 焉能事鬼’(〈先進〉) ‘未知生 焉知死’(〈先進〉) ‘子不語怪力亂神’(〈述而〉)이라고 하여 자신의 주 관심의 대상은 현실과 현실에서의 인간 삶의 문제에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36) 《論語》,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정 다수를 위한 교단이나 집회 장소가 필요 없다. 많은 종교 집단이 자신의 행사를 떠들썩하게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가족을 위한 행위를 하는 유교는 그렇게 선전하지는 않는다. 선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교의(敎儀) 체계가 두드러지지 않고, 성속(聖俗)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도덕적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 등, 종교로서 구체화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 뚜렷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³⁷⁾ 즉 마음의 심층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며, 도덕을 지탱하는 기반위에 종교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종교성 위에서 도덕을 구축하고 있는 종교들과는 도덕과 종교성의 구축 관계가 다르다.

2. 윤리 도덕을 접점으로 만나는 교육과 종교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인간 형성의 작업이 된다. 따라서 교육의 측면에는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간학적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종교와 교육은 만날 수 있다.

계몽기의 여러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들이 종교의 가치 체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인간의 윤리적 노력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는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교육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한다.³⁸⁾ 각 종교를 통해 인간이 체험하는 성(聖)스러움 혹은 성스러운 존재는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명하는 성격을 지닌다.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받들며, 마침내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즉 윤리(倫理)를 규정한다. 어떤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고유한 가치 평가이며, 이 가치 평가는 곧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윤리로 파급되어

37) 이에 대해 김성기는 '보이지 않는 종교'(<보이지 않는 종교로서의 유교, 그 역할과 전망>, 서울: 대화출판사, 《열린 종교와 평화공동체》, 2000, 204~243쪽 참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가지 노부유키(加地伸行)은 '침묵의 종교, 유교'(가지 노부유키, 이근우 옮김, 《침묵의 종교, 유교》, 서울: 도서출판 경당, 2002.)라고 표현하고 있다.

38) 오인택,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137쪽.

가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종교와 도덕은 본질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종교와 윤리간에는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가 성립한다.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중요한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다.⁴⁰⁾ 종교적 교육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을 이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종교, 침묵의 종교로서의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먼저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수양의 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종교와 윤리 도덕이 인간을 위한 지향치이며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면 성스러움의 체험을 이룩하고 인간이 마땅히 가야하는 길에 대한 길라잡이의 역할은 하는 종교 교육은 또한 도덕 교육인 것이다. 도덕은 인간 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이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실적 인간 욕구의 무조건적인 발산을 제어하고 조절하며 절제된 행위를 통하여 도덕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의례,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음악(樂),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지향의 인간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윤리 도덕의 함양, 개인적 수양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체득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경(居敬)·심성(心性)의 수양 교육 등이 종교로서의 유교가 종교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한 방향이 될 수 있겠다.

V. 나오면서

현재의 한국인들에게는 전통사상(토박이 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도교, 양명학, 실학사상, 동학사상, 서양철학의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다.⁴¹⁾ 또한 이종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의 오랜 역사적 시기, 즉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걸친 오랜 시기 동안에, 국가적으로 공인된 정통사상으로서 혹은 민중들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민간 신앙으로서 신봉하고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승해 온 사상들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사상으로서 우리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

39) 루돌프 오토, 김희성 옮김, 《성스러움의 의미(The Idea of Holy)》, 서울: 분도출판사, 1991, 37쪽.

40) J. 헤센, 허재운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4, 70쪽.

41) 이명현, 《한국의 민족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308쪽.

제, 신라의 순으로 이들 삼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유(儒), 불(佛), 도(道) 삼교(三敎)의 외래 사상과 선사시대 이래 전승되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 사상이 무교적 신앙과 사상(샤머니즘)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²⁾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우리, 즉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인가? 혹자는 이러한 융화정신(融和精神)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즉, 특징지워질 수 없고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구별되어 질 수 없는 그리고 과거의 한국인들과 현재의 한국인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정체성은 개성이고, 개성은 고유성과 창의성이 합하여진 것이라면 정체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은 현재성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들 즉,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정체성을 판단하고 규정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현상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적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주체성 역시 정체성 판단과 규정에 중요한 요소이다.⁴³⁾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역사 이래 제도적인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일반들의 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온 유교는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유교라는 종교의 특성상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종교는 성스러움을 체험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바의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유교는 현실의 생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 생활이 진리 체험을 위한 수양의 과정이다. 따라서 윤리 도덕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적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라는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많은 현대 종교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신들에게는 절대적 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종교가 자신의 신념 체계의 절대적 신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하는 제 요소들 역시 한국 또는 한국인이라는 장(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42) 이종후, 《한국철학사상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59쪽.

43)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0, 103~117쪽 참조

있다. 그러나 종교 교육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던 아니면 정체성 판단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던 문제는 해석이다.

《참고문헌》

- 《經書》(大學·論語·孟子·中庸), 서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93.
- 《舊唐書》3(二十五史 24), 대만;예문인서관 영인본.
- 《三國史記》, 이병도 역주, 서울;을유문화사, 1991.
- 《高麗史》,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편찬, 아름출판사 영인본.
- 《朝鮮經國典》, 정도전, 영인본 한국문집총간 5, 삼봉집, 서울;민족문화추진회.
- 《小學》, 김성원 교열, 서울;명문당, 1997.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책세상, 2000.
- 오인택, 《기독교 교육》, 서울;종로서적, 1984.
-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 서울;민족문화사, 1989.
- 최근덕, 《한국 유학사상 연구》,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2.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서울;집문당, 1988.
- 이명현, 《한국의 민족문화》,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 이종후, 《한국철학사상연구》,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루돌프 오토, 길희성 옮김, 《성스러움의 의미(The Idea of Holy)》, 서울;분도출판사, 1991.
- J. 헤센, 허재윤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서광사, 1994.
- 니니안 스마트,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이학사, 2000.
- 가치 노부유키, 이근우 옮김, 《침묵의 종교, 유교》, 서울;도서출판 경당, 2002
- 설동훈·정태석, 〈새로운 세대의 증장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사상》 제14권, 서울: 사회과학원, 2002.
- 이선영, 〈정보사회에서의 교육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교육철학》 제21권, 서울:교육철학회, 1999.
- 이정덕, 〈지역축제와 지역 정체성〉,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전남;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지역사회연구소, 1998.
- 민병하, 〈한국 유학의 전통적 교과과정〉, 《민족문화》 제4집, 서울;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김성기,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김성기, 〈통일이후 민족 동일성 회복과 유교의 역할〉, 《동양철학연구》 제23집,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0.
- 김성기, 〈보이지 않는 종교로서의 유교, 그 역할과 전망〉, 《열린 종교와 평화공동체》,

서울:대화문화사, 2000.

이세현,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서울: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길희성, 〈종교다원 세계속의 신앙〉, 《포스트 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서울:민음사, 1994.

황필호, 〈유교는 종교인가〉, 《공자학》 제7호, 서울:한국공자학회, 2000.

원고접수: 5월 12일 1차심사: 5월 19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유교철학 / 소속: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② 관심영역: 유교 종교성, 예학

③ 주요논저: 〈선진유가의 천인관계론〉, 〈똥자가례〉에 나타난 주자의 예 이해, 〈논어〉에 나타난 천인합덕

④ E-mail: sehyun14@hanmail.net

Identity of Koreans and Religion Education of Confucianism

Lee, Se-hyu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Korea is a very complex society which has complicated social structure and various religions. As a member of this, Korean identity can be verified by holding valuation in common and solidarity through an agency which has positive affects.

Since a history began, Confucian values have been used as a mean to maintaining social system, and also as a useful tool to forming values. In this aspect, Confucianism is an universal value to Koreans and still stands in Koreans. Confucianism is in the middle of traditional education. Therefore Confucian values which considers human relationship important, consists of an aspect of Korean identity by education. Confucianism that begins from mundaneness considers ethics and morals important in the ordinary life to be in an upright human relationship and at this point its religious role and educational role meet. In the view of identity issue and religion education, independent interpretation, which is seen in the process of expropriating all the phenomenon of culture and institutes, works importantly.

Key words : identity, universal value, value, humane study, ethics and morals.